

## 요약

2024년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 IRA와 유사한 개인연금계좌(PPA)를 공식 시행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 PPA는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여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하며, 법정 은퇴 연령 도달 후 적립금을 수령하는 연금 자산 축적 계좌임. 중국 정부는 PP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

- 2024년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 IRA와 유사한 개인연금계좌(Private Pension Account, 이하 'PPA')를 공식 시행하였으며, 이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도록 촉진하고 있음<sup>1)</sup>
  -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3층 연금 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가입자가 가장 많은 1층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,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불가피함
    - 중국의 공적연금은 직장(근로자) 및 지역(농민을 포함한 비근로자)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되며, 근로자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(소득대체율)은 2000년 70%대에서 2019년 40%대로 하락하였고, 비근로자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
  - 퇴직연금은 2004년 임의 가입 방식으로 시행된 이후, 2013년 세제혜택 제공, 2016년 공무원 대상 퇴직연금 도입 등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발표되었으나, 이후 추가적인 활성화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 있음
    - 퇴직연금 강제 가입 또는 자동 가입을 통한 가입 확대는 퇴직연금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, 민간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
  -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, 2018년 세제적격 연금보험(우리나라 연금저축보험에 해당)을 출시한 후, 2024년 12월부터 PPA를 공식 시행함
    - 중국 정부는 2018년 세제적격 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상하이, 푸젠, 쓰저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나, 홍보 부족과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음
- 중국의 PPA는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입하고, 세제혜택을 받으며, 적립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하여 원칙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 도달 후 일시금, 분할 지급,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 자산 저축 계좌임
  - PPA는 공적연금 가입자가 개설할 수 있으며,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통해 은행 예금, 자산관리상품, 연금보험상품,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거나, 디폴트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운용을 실행할 수 있음

1) English.gov.cn(2024. 12), "China announces nationwide roll-out of private pension scheme"

- 연간 최대 1.2만 위안을 납입할 수 있으며,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연금 법정 수령 연령 도달 후 일시금, 분할 지급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지만, 노동능력 상실 등 특정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도 허용됨
- 세제혜택도 제공되며, 가입자는 연간 1.2만 위안의 소득공제,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, 그리고 적립금(수령 방식과 상관없음) 수령 시 3%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

○ 지난 2년여 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PPA는 중국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재의 운영 조건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<sup>2)</sup>

- 중국 정부의 36개 도시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, 2024년 12월 기준 PPA 가입자는 약 7,000만 명에 달하며, 이는 민간기업 퇴직연금 가입자 수(2024년 9월, 약 3,200만 명)의 2배 이상으로 많은 중국 국민이 PP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기준 시범 운영 36개 도시에서 PPA 적용 대상자 대비 계좌 개설 비율은 약 42%, 개설된 계좌 대비 기여금 납입 비율은 약 30%에 불과하여 PPA의 발전이 더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국민의 낮은 소득 수준, 취약한 세제 혜택, 부진한 투자수익률 등은 PPA 활성화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, 현재의 운영 조건만으로는 PPA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  -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, 현재 3% 이상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약 9,0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이처럼 중국 국민의 낮은 소득 수준이 PPA 활성화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
  - 또한, PPA 계좌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, 연금소득세율이 3%로 설정되어 있어, 3% 이하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
  - 더불어 PPA의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공모펀드는 2024년 12월까지 284개에 달했으나, 이들의 투자수익률은 중국증시 대표지수인 CSI300보다 낮은 0~6% 범위에 머물고 있어, 투자 성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

○ 2025년 1월 중국 정부는 PPA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올해 내로 PPA 실행 방안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<sup>3)</sup>

-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PPA 개선 방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지만, 공개된 전문가들의 논의를 고려할 때 세제혜택 확대, 중도 인출 조건 완화, 투자상품 다양화, 기여금 납입 한도 상향 등의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
  - 3% 이하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및 면세자의 PPA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수령 시의 연금소득세율을 0%로 낮출 필요가 있음
  - 또한, 미국 IRA의 사례를 참조하여, 긴급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PPA 개설을 꺼리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되 10%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PPA의 중도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  - 아울러,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홍콩 주식, 금 등 귀금속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,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

2) 平安证券(2025. 1), “中国补充养老金: 个人养老金的发展现状与制度优化”

3) 中国网(2025. 1), “介绍2024年人力资源和社会保障工作进展情况”; 平安证券(2025. 1), “中国补充养老金: 个人养老金的发展现状与制度优化”